

GE, 항공 엔진 정비 서비스 한국 사업 이전 확장

- 대형 엔진 정비 서비스 역량 강화
- 정비 시간 절반 이상 단축

2014년 4월 15일, 서울 - GE코리아대표 강성욱 총괄 사장은 대형 항공기, 외항사 및 저가 항공사의 한국 취항 증대에 따라 GE의 항공 엔진 정비 서비스 사업인 GE 온윙서포트(On Wing Support) 한국 사업장을 인천에서 김포로 이전•확장했다고 밝혔다.

김포항공산업단지에 새롭게 위치한 GE의 온윙서포트 한국 사업장은 약 1,200평 규모로, 대형 엔진 정비 서비스 역량을 크게 강화해 최신 대형 엔진을 비롯해 다양한 기종의 엔진 서비스를 국내외 항공기 운행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GE온윙서포트코리아 서용환 사장은 “GE는 항공기 운행사들에게 정비 시간을 줄이고 비용 효율을 높이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대형 엔진으로까지 확장해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엔진을 비행기에서 분리하지 않고 탑재된 상태로 정비하며 엔진의 정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통상적인 정비 시간을 50%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확장에 따라 GE는 국내 항공사의 보잉 777, 747, 787드림라이너, 에어버스 A380 등 대형 엔진 수요와 저가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의 국내 취항 증가에 발맞춘 GE만의 특화된 온윙서포트(On Wing Support™) 엔진 정비 서비스를 항공기 운행사들에게 확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개발된 상용 엔진 중 최대 크기의 엔진으로 B777 기종에 주로 탑재되는 GE-90-115B 엔진을 4대까지 동시에 작업하는 등 대형 엔진 서비스 설비도 개선되었다. 해외 엔진 정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엔진을 한국으로 가져와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온윙서포트(On Wing Support™)는 GE가 상표 등록한 엔진 서비스 이름이다.



▲ GE 엔진 좌: GEEnx-2B/우: CFM56-7B



GE코리아 강성욱 총괄 사장은 “GE의 엔진 서비스 사업 확장은 GE가 한국에 대한 장기적 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한국의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GE항공 심상덕 전무, 아시아나항공 권오호 정비지원 상무, 와이엇 배커스 GE OWS/아태 지역 고객 지원 매니저, 대한항공 이수근 정비본부장 전무, 브라이언 보일 GE OWS 총괄 사장,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이성용 안전운항국장, GE코리아 강성욱 총괄 사장, GE온윙서포트코리아 서용환 사장, 데이브 드링 GE OWS 아태 지역 총괄 사장

GE 온윙서포트 사업부는 1992년 영국에 첫 사업장을 설립한 이후, 현재 한국을 비롯, 미국, 영국, 두바이, 중국 등 전세계에 7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GE의 상용기 엔진 고객들의 엔진 정비, 보수 작업 및 긴급 정비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사업장은 2000년 2월 설립되었으며, GE 본사에서 인정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전세계로 파견돼 엔진 정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

GE에 대하여

GE는 중요한 일을 구현합니다. 최고의 인재와 기술로 최대 난제를 해결합니다. 에너지, 의료, 가정, 수송과 금융에서 솔루션을 찾아 냅니다. 세계를 짓고 건설합니다. 세상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세계를 이동시키며 치료합니다. 상상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GE가 실현합니다.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www.ge.com)

한국에서는 1976년 출범 후 첨단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협력하며 한국 기업과 발전의 장기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 발전, 석유와 가스, 헬스케어, 수처리, 가전과 조명,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1,400여명의 직원들이 제공한다. 웹사이트 참조 (www.ge.com/kr)



GE항공

GE Aviation은 세계 최대 제트엔진 공급업체로서, 연 21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기준). 군용기, 상용기, 비즈니스 항공기의 제트엔진과 터보프롭 엔진, 항공기용 통합시스템,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 등을 공급하며, 항공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83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39,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문의

GE코리아 김수연 차장 (T: 02-6201-4023)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이수경/박도윤/조현지(T: 6323-5074, 5053)